Entertainment p/16

지드래곤 음원차트 '올킬'

메트로 2013년 9월 11일 수요일 제2612호

Sports p/21

벌써 25번 또 맞은 추신수

중·고교 교복값 상한선 20만원

NEWS p/03

아베 일본 총리 새빨간 거짓말

WORLD p/04

메트로 2013년 9월 11일 수요일 제2812호 www.metroseoul.co.kr

싹쓰리 원조 누른 속편 인기

한국 크로아티아에 1-2 석패

전두환, 16년 만에 장남 시켜 "국민께 사죄… 밀린 추징금 내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미납 추징금 납부 계획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전씨 측의 공식 사과는 16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 /손진영 기자

믿지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일본산 수산물 공포에 손님 줄자 식당마다 비치 · 전문가들 "제대로 측정 안돼"

'안전하다는데 먹어도 될까?'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촉발된 먹거리 논란이 식탁 위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방사능 물질이 든 수산물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성분이 검출돼도 기준치 이내일 경우 해당 수산물 유통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미생물학)는 방사능 기준치 이내의 식품이라도 방사능 물질은 발암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기준치 이하여도 발암 위험"

김 교수는 "정부의 방사능 기준치는 의학적인 것이 아닌 오염된 식품의 유통을 막는 관리의 기준"이라며 "세슘을 포함한 모든 방사능 물질은 암을 유발하며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정비례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는 믿을 수 있는 걸까. 최근

10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G마켓에 따르면 휴대용 측정기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상태로 방사능 수치를 직접 측정하려는 식당 주인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만으로는 정밀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값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휴대용 측정기로는 1000베크렐(Bq) 이상에서 방사능 검출이 가능하지만 음식에는 100베크렐 이하의 소량의 방사능이 있어 제대로 된 측정이 쉽지 않다"며 "측정 결과를 과학적인 검토 없이 인체 유해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역시 "휴대용 측정기는 물질이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물질이 함유한 방사성 물질의 양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방사성 측정을 위해 식품을 분쇄한 뒤 1600초 혹은 1만 초 동안 측정하는 고감도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먹거리 불안이 커지자 정부의 대처도 강경해지고 있다.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도 일본 수준인 1kg당 100베크렐로 강화했다.

또한 후쿠시마 등 8개 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비오염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결정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나서 방사능 정보를 쉽게 풀어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방사능와치'를 문을 열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 등을 알려준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18일 오전 귀성 피하세요

귀경길은 19일 오후 최악

귀성·귀경 최대 예상 소요시간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는 추석 하루 전인 18일 오전, 당일인 19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9시간40분, 서울~광주 9시간이며, 귀경길은 부산~서울 7시간10분, 광주~서울 5시간2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추석 연휴 교통수요조사 결과를 내놓고 17~22일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8900가구를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의 예상 이동 인원은 총 3513만 명,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585만 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추석 당일인 19일 이동 인원이 728만 명으로 가장 많고, 20일(629만 명), 18일(601만 명), 17일(565만 명), 21일(554만 명), 22일(436만 명)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귀성 교통량은 18일(55.7%)에 집중되고, 귀경 교통량은 추석 당일(36.5%)과 다음날인 20일(40.2%)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앱,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혼잡도, 최적 출발 시기 등을 알려줄 방침이다.

/박상훈 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특별호 11~12일 배포

연희동 사저에 합천 선산까지 포함

사과문 읽는 장남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 발표…"16년 버텨 1조 남는 장사" 비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웃도는 금액의 재산 목록을 검찰에 제출,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씨 일가도 완납 의사를 표명하면서 내란죄 등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가 완료될 전망이다.

전씨 장남 재국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서 제출에 앞서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미납 추징금 변제 계획을 제시했다.

납부 재산 목록은 구체적으로 재국씨를 포함한 3남 1녀 명의의 부동산과 소장 미술품과 경남 합천군 선산(21만 평), 전씨 내외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을 포함한 1703억원 상당이다.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연합뉴스

◆ 이순자 30억 보험은 안 내놔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연금보험(약 30억원)과 재용씨의 이태원 빌라 1채는 납부 목록에서 제외됐다.

시민들은 그동안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던 전씨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줄지 못하고, 전씨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 등이 매각돼 실제 추징금이 납부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벌금·과태료와 달리 추징금은 연체해도 별도의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늑장 납부하면서 이자만 약 2700억~1조원가량을 벌는 "남는 장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추징금으로 부당하게 불린 재산 모두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전씨 일가의 해외 재산 은닉·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김봉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부동산 경기 회복 국회에 달렸다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8·28 전월세 대책의 약발이 먹힌 걸까. 냉랭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퍼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조금이나마 오른 모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이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값도 각각 0.02%, 0.01% 상승해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매 시장에서도 주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겨우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런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8·28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책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취득세율 인하나 월세 소득공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전히 여야의 이견이 대립되면서 이번 대책도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 4·1대책 발표 이후 입법 과정에서 일부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대책만 발표한다고 해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간신히 움직인 이 때, 이번만은 정략을 떠나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뉴스 & 뉴스

국가대표 출신 문체부 차관 6개월 만에 사의

● 사상 첫 사격 국가대표 출신 차관으로 주목받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취임 6개월 만에 낙마했다.

문체부는 10일 오후 박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차관이 갑자기 사임한 것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목동사격장의 명의 이전과 관련해 '공문서 변조 의혹'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우리측 인력 30여명 현지체류 합의

● 남북은 10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앞두고 기반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한 우리 측 인력 30여명의 현지 체류에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2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오전 회의에 앞서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우리 측 점검 인원의 체류를 요청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대로 5600km 날아가 수출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가 10일 경남 사천 공군 제3비행훈련단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항공기 T-50는 국내 최초로 화물기나 배기 아닌 직접 비행 방식으로 수출되며 최종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이슈 끄유디하지 5600km를 7시간 동안 비행해 1박2일 후 도착한다 /연합뉴스

스스로 세상 등진 청소년 10년새 57%↑

청소년 자살 증가율 OECD 평균 크게 웃돌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성인 자살률보다 증가폭이 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10일)을 맞아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19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지난 2001년 3.19명에서 지난 2011년 5.58명으로 57.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20~64세 성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6.96명에서 33.58명으로 50.5% 늘었다.

또 OECD 회원국의 청소년층 자살률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국의 청소년층 자살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0~24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한국의 같은 연령대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7% 급증했으며 순위도 18위에서 5위로 치솟았다. /황재용기자 [illegible]

독도함 항해 도중 화재 당직중 장병 1명 부상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해군 독도함(1만4000톤급)의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병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 관계자는 10일 "오늘 오전 10시40분께 어청도 서남방 24마일 해상을 항해 중이던 독도함의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이모(23) 하사가 수병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진압됐다"면서 "현재 가속관이 도착해 발전기를 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편대에 있는 해군2함대사령부로 예인해 정비할 계획이다. 독도함은 15일 예정된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지원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김민준기자 [illegible]

익어가는 가을 10일 안산시 남동구 (?)내유농장에서 한 주민이 즐거운 표정으로 잘 익은 알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복값 상한 20만3084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 통보 —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사실상 동결

중·고등학교 교복 최고 가격이 한 벌에 20만3084원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교복 한 벌 가격 상한선을 이같이 정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10일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복 구매 가격 또는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해 학교에 안내하도록 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가 정한 교복 가격 상한선은 동복 한 벌이 기준이며 재킷·조끼·블라우스나 셔츠·조끼·치마나 바지 등 4종류가 포함된다.

이 가격은 올해 4월 전국 평균 동복 공동 구매 가격 19만9689원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6%)를 반영, 사실상 동결한 수준이다. 이는 올해 평균 동복 개별 구매 가격 25만845원보다는 4만7761원(19%) 싸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이번 가격 기준안에 지역 여건을 고려, 적정한 금액을 가감한 구매 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해 학교에 안내한다.

2015년부터는 모든 국공립학교가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 가격으로 구매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등 상급학교 예비 신입생을 상대로 교복 구매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시·도별 교복 평균 가격을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국공립학교는 교복 디자인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립학교도 사전에 따르도록 권하기로 했다.

/김할리기자 srass910@metroseoul.co.kr

추석연휴 전날이 '사고뭉치'

교통사고 건수 평소보다 28%↑ 사망자는 52% 늘어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2010~2012년) 추석 연휴 자동차 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3672건(3년치 합계 일평균)으로 평상시 2869건보다 28% 많았다.

사고량이 많아짐에 따라 추석 연휴 전날 사고에 의한 사망자도 평상시 9명보다 52% 증가한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당일에는 운전자가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86.9% 늘어났다.

시간대별 사망 사고는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많았으나 평상시와 비교하면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의 사망자 수가 2배 넘게 늘었다. 이 시간대는 도로 정체를 피해 새벽 일찍 출발한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상자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많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평상시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낯선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높은 주의력이 요구된다"며 "피곤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운전을 피하고 몸 상태 회복 후에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뽀로로팀' '후까팀' 짝퉁 캐릭터 단속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10일 열린 불법 캐릭터 복제품 합동단속 브리핑에서 뽀로로(왼쪽)와 모조품인 마시멜로 공을 비교하고 있다. 정부는 뽀로로팀, 후까팀 등 주요 캐릭터별로 팀을 구성해 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당황되네요" 10일 서울 도심에 갑자기 비가 내리자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이 옷으로 비를 가린 채 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폭력 피해자 70%는 아내

최근 5년여간 경찰에 적발된 가정폭력 가운데 아내를 상대로 한 폭력이 7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김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8년 이후 가정폭력 적발 건수 및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경찰이 검거한 가정폭력은 5만5026건으로, 아내 학대가 3만8985건(7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 학대(2065건 3.6%), 노인학대(1142건 2.1%), 자녀 학대(487건 0.9%), 기타(1만2347건 22.4%) 등이었다.

노인 학대는 2010년 111건에 그쳤으나 2011년 144건, 2012년 173건, 올해 7월까지 311건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현준기자 mjkim@

인사동길 13일부터 '금연거리'

내년부터 10만원 과태료

국내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진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3일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인사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인사동 72~관훈동 136에 이르는 인사동길 690m다.

구는 연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두고 이를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인사동길은 하루 유동인구가 평일에는 3만~5만 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7만~10만 명에 이른다.

/김할리기자

신도림역 혼잡도 개선 완료

서울메트로는 하루 평균 5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혼잡도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승강장과 대합실 면적을 넓혀 환승객을 위한 넉넉한 통로를 확보했으며 지상과 지하 승강장·대합실 등 이동을 돕기 위해 엘리베이터 4대와 에스컬레이터 9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보험범죄 척결 등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태영)는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과 지난 3일 보험범죄 척결과 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 부당 청구 등 보험범죄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전애은 교수 마르퀴즈 등재

한서대학교는 전애은(항공관광학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4년판에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인명사전은 매년 전 세계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업적을 남긴 인물 5만5000명을 선정하며 전 교수는 '항공 서비스' 분야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범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 시작

1906년 9월 11일 인도 민족운동 지도자인 모한다스 간디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영국 런던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인도로 돌아와 변호사로 개업한 간디는 소송사건 계약으로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들의 인종차별로 고생하는 인도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 비폭력 저항운동인 '사티아그라하' 투쟁을 시작했다.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라고 불린 그는 48년 힌두교 광신자에 의해 뉴델리에서 암살당했다.

엄마, 수술만 하면 볼수있죠?

metro HongKong

안구 적출당한 中소년 의안 이식수술 받기로

지난달 '안구 적출 테러'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6세 중국 소년이 의안(義眼) 이식 수술을 받는다.

10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산시성에 사는 소년은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광둥성 선전에 도착했다.

홍콩의 유명 안과의사인 데니스 람 순저우는 "소년의 눈 상태를 살핀 뒤 인공 안구를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술 후 안구가 자리를 잡은 뒤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도 소년에게 장착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안 이식은 시력 회복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인공 안구를 삽입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정상인과 비슷하다.

소년의 부모는 수술을 통해 다시 앞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수술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미기자

'007 잠수함 차' 10억 낙찰

1977년 영화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나왔던 '잠수함 자동차'(사진)가 10억원 상당에 팔렸다.

9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영화에서 잠수함으로 변했던 흰색 로터스 에스프리 승용차가 런던의 한 경매 행사에서 55만 파운드(약 9억38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당초 예상가였던 65만 파운드에는 미치지 못했다. 잠수함 기능은 있지만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점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완벽통제 말이 됩니까?" 도쿄전력 정면 부인

들켜버린 '아베 거짓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무슨 말인가? 상황을 안정시키고 싶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통제 상황에 대해 아베 신조(사진) 총리가 '안전 보장'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안전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9일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상황을 안정시키고 싶다"며 "정부가 어떤 의도로 원전 오염수 통제 관련 발언을 했는지 그 진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 쪽에 차수벽과 수중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만 오염수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중수소(트리튬)와 같은 방사능 물질은 물과 성질이 유사해 펜스를 통과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아베 총리는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방사능 올림픽이 될 우려는 없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근처 바닷물에서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달 도쿄전력이 항만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의 농도는 ℓ당 최고 48베크렐까지 검출됐다. 이는 아베 총리의 발언처럼 오염수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전력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궁색하게 변명하며 상황 정리에 나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서 "아베 총리는 오염수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염수의 영향'을 차단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별써 12주년… 다시 밝힌 9·11 추모의 빛 9·11테러 12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테러 현장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서 '추모의 빛'이 하늘 높이 쏘아 올려지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리아 화학무기 포기' 오바마, 러 제안 고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제안한 '시리아 화학무기 포기'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가 보유한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통제로 옮겨 파기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에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제안대로 된다면 긍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과 이번 제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시리아 군사개입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결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독자적으로 시리아를 공격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왈리드 알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을 만나 "시리아가 보유한 화학무기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슈퍼갑' 백악관

조선미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인턴 무보수' 오랜 관행 워싱턴 생활비 부담되는 저소득 학생엔 그림의 떡

"버락 오바마 대통령님! 백악관 인턴도 월급 주세요."

미국에서 백악관 인턴들이 "우리도 일한 만큼 대우를 해달라"며 정부의 무보수 관행에 반기를 들었다고 CNN머니가 최근 보도했다.

백악관 인턴은 미국 학생들이 선망하는 인턴직이다. 취업 전쟁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인 동시에 다양한 정부 행사에 참여하며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황금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악관 인턴은 무보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일하지만 별도의 보수나 수당은 없다. 게다가 백악관 측은 학생 인턴을 위해 기본적인 숙박시설도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비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부모에게 수천 달러를 받아 숙식을 해결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백악관 인턴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학생들이 인턴 기간 동안 워싱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숙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최소 4000~9000달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백악관 무급 인턴이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에서는 대학생 행정 인턴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외신 번역, 국정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월급은 1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 정희정(25)씨는 "한국도 대학생 인턴의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국은 훨씬 심한 것 같다"며 "세계 최고 '슈퍼 갑'의 횡포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 있는 학생들이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백악관 측이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eonmi@

아파트 분양 '진격의 10월'

전국 8개단지 6만4000가구 풀려 '작년의 2배'… 마곡은 이달 스타트

가을 분양 시장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10월 한 달간 분양될 아파트는 전국 83단지 6만4000가구로 지난해의 2배에 달한다.

우선 하반기 최대 관심 키워드는 단연 '마곡지구'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마곡지구는 크기가 여의도의 1.5배에 달하고 김포공항과 가깝다. 특히 LG의 11개 계열사를 비롯해 코오롱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의 입주가 확정돼 있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59~114㎡로 구성됐고 2654가구가 분양된다. 이달 분양 접수를 최초로 실시한다. 3.3㎡당 예상 분양가는 약 1300만원대로 인근 내발산동(1417만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힘찬건설은 최근 마곡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했다. 이번에 분양하는 '마곡지구 헤리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29㎡의 소형 오피스텔 341실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최저 779만원, 평균 800만원 초반대로 입주는 오는 2015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도 하반기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송파구 장지동 부지에 공급될 청약지가 4개 블록이나 된다. 모두 중대형 평면 주상복합 부지로 9~11월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9월에 제일 먼저 선보이는 위례 아이파크 1차 주상복합은 지하 3층~지상 24층 6개 동 총 40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7~128㎡로 구성된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김은진 과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지역인 위례, 마곡지구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특히 신규 물량에 대한 각종 혜택과 대상, 범위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람보르기니 새 슈퍼카 7억! 람보르기니 서울이 10일 아벤타도르 LP700-4 로드스터를 출시했다. 날렵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모델 가격은 사양에 따라 6억원 후반에서 7억원 초반 사이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4.3일 쉬고 94만원 받는다

직장인들 지난해보다 '여유'

직장인들이 지난해보다 풍성한 추석을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휴 일수는 평균 4.3일로 지난해보다 0.2일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5일 이상 쉰다고 답한 기업은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61.8%에 달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연휴 차이도 줄었다.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0.1일 늘어난 4.5일, 중소기업은 0.3일 늘어난 4.3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 역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늘어난 77.6%로 나타났다. 상여금 액수도 지난해보다 4.3%(3만9000원) 많은 1인당 평균 9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지난해보다 4만2000원 늘어난 120만9000원, 중소기업은 3만7000원 증가한 85만6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올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42.3%)됐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지난해(60.3%)에 비해서는 18%포인트나 낮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상여금이 늘고 상여금 지급 기업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lcmlee@

뉴스 & 뉴스

신입 희망연봉 2300만원

● 잡코리아가 신입직 구직자 421명과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희망 연봉은 평균 2370만원,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연봉은 평균 233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구직자 중 72.4%는 희망 연봉보다 기업이 제시한 연봉이 다소 낮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국명기자

파밍사이트 알림 서비스

●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부터 경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 및 200여 개 금융사 사이트를 시작으로 '파밍사이트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이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재상기자

G2, 갤노트3 눌렀다

美 IT매체 폰아레나 인터넷 투표서 28% 지지받아 '1위'

휴대전화가 대중화 바람을 타고 있던 1990년대 중후반 '가전 라이벌'인 삼성과 LG는 휴대전화 시장에서도 격돌했다.

당시 양사 임직원들은 "에어컨, TV, 세탁기도 모자라 휴대전화에서 또 붙는다"며 경쟁이 치열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삼성의 애니콜 브랜드가 기세를 잡더니 순식간에 시장을 평정했고 이후 LG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2009년 이후에도 한동안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

그런데 2013년 9월 10일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G2'가 삼성의 자존심 '갤럭시노트3'를 제치는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휴대전화를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인터넷 투표를 진행한 결과, LG전자 G2가 7902명 중 2237명(28.3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갤럭시노트3는 1901명(24.06%)이 선택해 G2보다 4.25% 포인트 뒤졌다. 두 제품에 이어 소니의 엑스페리아Z1(1477명, 18.69%)과 HTC 원(1040명, 13.16%), 갤럭시S4(676명, 6.55%) 등 순으로 나타났다.

G2는 폰아레나 필진의 직접 평가에서도 갤럭시S4를 제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일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LG전자의 G2(왼쪽)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한 것에 불과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G는 초기 스마트폰 대응에 실패한 뒤 지난해 옵티머스 브랜드로 재도약을 시작했지만 '아이폰', '갤럭시'에 비해 '한참 뒤진다'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려웠다.

LG전자의 고위 임원이 삼성을 따라잡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도 삼성-LG 라이벌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모바일 부문은 아니지만 권희원 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장(사장)은 최근 "우리가 선도하는 제품을 1년 반 전부터 계속 내놓고 있는데 어게 (삼성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체 순위는 삼성이 1위지만 첨단 제품을 삼성보다 먼저 내놓고 있는 만큼 따라잡거나 제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KT '광대역 LTE-A'로 장비 교체 KT 네트워크부문 기술진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에서 LTE 네트워크 장비를 광대역 LTE-A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 KT는 정부의 LTE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받은 1.8㎓ 대역 자사 인접 주파수 블록과 기존 주파수 블록을 합쳐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면서 그간 900㎒ 주파수 혼선 문제로 미뤄왔던 LTE-A 서비스도 함께 시작할 방침이다. /KT 제공

똑같은 선물세트 가격 4배차

추석 앞두고 30종 비교결과

같은 구성의 추석 선물세트인데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최고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지난 4~6일 16개 백화점·대형마트·오픈마켓·인터넷 쇼핑몰의 추석 선물세트 30종 가격(배송비 제외)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선물세트 가격 차이가 18~293%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293%로 가장 많이 벌어졌던 제품은 샴푸와 보디워시·비누·치약 등으로 구성된 LG생활건강 'LG 3호'로 11번가에서 가장 저렴한 9000원에, 인터파크에선 3만5360원에 팔리고 있었다.

이 밖에 'LG 4호'는 최저가와 최고가가 3배에 가까운 186%, CJ 스팸 고급유 7호는 2배 이상 차이 났다. /정윤순기자

셋톱박스 매출1조 '복지천국'

자율적 업무 분위기 인턴도 이맛에 '흘딱'

"정직하고 당당하고 정실하게 일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회사."

휴맥스의 인재상에 대한 질문에 박혁순 인사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벤처로 출발한 회사답게 경직되지 않고 자율적인 회사 분위기에 맞는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사내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최근 비무리된 하계 인턴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회사 분위기에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선배들에게 들어왔던 살벌하고 강압적인 기업 문화를 휴맥스에서는 보지 못했다며 모든 인턴들이 공채에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답했을 정도다.

-휴맥스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노력하는 직원에게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입사 4년차 대리급 직원이 부장급 이상이 담당하던 인도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사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말 성과급도 기본급이 아닌 연봉의 8.3~30%를 지급하고 있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휴맥스는 직무별로 공채를 진행한다. 따라서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그동안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비법이다. /이국명기자

박혁순 휴맥스 인사팀장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휴맥스 ①

대기업 수준 연봉에 훌륭한 복지제도, 탄탄한 고용 안정성까지—.

'신의 직장' 못지않은 조건을 갖추고도 구직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다. 업계에서는 알짜기업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지만 기업 간 거래(B2B) 비중이 높거나 홍보 부족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메트로신문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도움을 받아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알짜 기업들을 엄선해 소개한다.

국내를 비롯한 영국·독일·중동 셋톱박스 1위, 매출 1조원 돌파, 세계 80개국 수출, 16개 해외 법인.

'벤처 1세대' 기업인 휴맥스가 지금까지 올린 놀라운 성과다. 전체 직원의 60%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할 정도로 기술 개발에 주력해 세계 방송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1996년 아시아 최초, 세계 3번째로 디지털 위성방송 셋톱박스 개발에도 성공했다.

휴맥스의 자랑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졸 초임 연봉이 3300만원으로 웬만한 대기업을 능가할 수준이다.

복지 프로그램도 다른 회사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건강검진, 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은 기본이고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명상, 스트레칭 위주으로 구성된 힐링 프로그램, 직원 자녀를 위한 키즈캠프, 매달 한 차례 아트홀 공연 등 근무 의욕을 높이는 복지제도가 무려 30여 개에 달한다.

휴맥스 직원들이 사내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대졸 초임 3300만원 '대기업급'…후생제도 무려 30개
흑자바탕 매년 꾸준한 채용 '퇴직률 4.4%' 고용 안정

고용 안정성도 최고 수준이다. 1989년 설립 이후 딴 해 빼고는 흑자를 유지할 정도로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매년 30~100명의 신규인력을 꾸준히 뽑아 3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유학·이사 등 불가피한 사례까지 포함해서도 지난해 퇴직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직원들은 자율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벤처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덕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까지 하반기 공채

휴맥스는 '글로벌 IT 대기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공채를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 공급망 관리(SCM), 품질, 마케팅,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30~40명의 인원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채는 29일까지 일반 공채(recruit.humaxdigital.com)와 22일까지 스펙 초월 소셜 리크루팅(www.starting.re.kr)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류전형을 없앤 스펙 초월 소셜 리크루팅의 경우 3개의 스테이지 미션 수행 등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후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12월 초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kmlee@metroseoul.co.kr

1970년대 중동건설붐 주역 자산 60조 '10대그룹' 우뚝

이주의 채용기업

동부 동부그룹

1969년 설립된 동부그룹은 1970년대 초반 중동 건설 시장에 선발 기업으로 진출해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 사업 다각화를 전략적·계획적으로 추진해 1990년 20대 그룹으로 진입했다. 이후 성장을 거듭한 동부그룹은 2000년도에는 10대 그룹으로 발전했다. 이는 선발 기업들보다 30~40년 뒤늦게 출발한 후발기업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다.

철강, 금속, 화학, 보험, 증권, 은행 등 동부의 7대 사업 분야는 해당 산업과 업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자리 잡았다. 현재 자산 60조원, 매출 30조원, 59개 계열사, 60개 사업 부문, 임직원 4만여 명을 자랑한다.

동부에서는 7대 사업 분야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우수한 대졸 신입사원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동부그룹 채용 게시판(www.dongburo.com)을 참고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제빵왕 향한 첫발…반죽부터 차근차근

김현정 기자의 두잡 체험기

제과제빵 ①

커피전문점 열풍에 이어 최근 수제 타르트, 마카롱 등 고급 디저트 카페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제과·제빵 기술을 활용해 두잡에 도전하려는 직장인들이 부쩍 많아졌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본격적인 파티시에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블로그 등을 통해 홈메이드 강습을 열어 부업으로 삼을 수도 있다.

호기심이 일었다면 우선 주말 하루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직장인 취미반에서 부담 없이 첫 발걸음을 떼면 된다.

기자는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밀집한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리 잡은 신사제과제빵 전문학원에서 실용반을 수강했다.

수강생의 범위는 취미로 배우는 이들에서부터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회사원, 인테리어 분야에 제과·제빵 기술을 접목하려는 자영업자까지 다양했다.

첫째는 첫 시간에 만든 메뉴는 초코칩 쿠키와 오렌지 사브레다.

별다른 베이킹 기구 없이 반죽을 만들어

지난달 23일 신사제과제빵학원 실용반 수강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현정(왼쪽) 기자가 제과의 향을 익히고 있다.

손으로 적당한 크기만큼 떼어내고 오븐에서 굽기만 하면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심자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강사는 각종 재료의 계량이 적힌 레시피를 나눠줬다. 수강생들은 주방 곳곳에 비치된 마가린, 박력분 등의 재료를 섞기고 이리 가루를 배합해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다.

반죽은 가장 중요한 기본기다. 빵과 과자의 종류별로 반죽을 섞는 정도나 저대거나 거품을 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므로 잘 숙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빵, 과자의 향이나 맛을 더해 줄 초코칩, 오렌지필 등의 부재료를 섞었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제과·제빵 전문 상가에서 구입하면 된다.

오븐에 10~15분 정도 구우니 고소한 빵 냄새가 퍼졌다. 갓 구운 빵과 과자를 먹는 맛이 별미다.

3시간여의 수업이 끝나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제과·제빵이 한층 친숙하게 여겨졌다. 제빵왕의 꿈을 가진 이들이라면 첫 발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했다. hjkim@

가을엔 역시 뿔테가 정답

안경 트렌드 - 얇은 프레임·이음새 장식 '포인트'

안경은 밋밋한 패션을 멋지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을 지녔다. 이에 이어 수입업체 서원 I T C 관계자는 "선글라스를 즐겨 쓰는 여름과 달리 선선한 가을에는 멋내기 아이템으로 안경이 주목을 받는다"며 "이번 시즌에는 컬러와 프레임이 살짝 변형된 뿔테 스타일이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검정과 회색의 매치가 돋보이는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안경은 투톤 컬러가 심심함을 덜어준다. 가느다란 프레임과 템플(안경 다리)은 세련된 인상을 줘 스마트한 인상이 필요한 비즈니스맨에게 제격이다.

오피스 레이디에겐 '캣츠 아이' 프레임의 검정 뿔테 안경을 추천할 만하다. 양 끝이 살짝 올라간 스타일은 섹시하면서도 도도한 느낌을 자아낸다. 작은 시선을 위로 끌어 올려 각진 얼굴형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다.

◆호피 패턴·갈색톤 인기 지속

선선해지면 고개를 드는 레오파드(호피 무늬) 패턴의 인기도 여전하다. 다만 올가을에는 골드 컬러와 만나 한층 고급스러워진 것이 특징이다.

호피무늬가 눈에 띄는 톰포드 안경은 프레임과 템플의 이음새와 코 허리의 금색 장식이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톰포드 관계자는 "은은한 갈색의 뿔테는 니트 같은 따뜻한 느낌의 옷과 잘 어울린다"면서 "가을 유행 컬러인 레드와 버건디 등 어두운 톤의 상의와 매치해도 세련돼 보인다"고 귀띔했다.

/박지원기자 ···@metroseoul.co.kr

앙증맞은 조카 선물 모여!

유아동 브랜드들 의류·화장품 등 프로모션 푸짐

자녀들의 '추석빔'과 선물이 필요한 한가위를 앞두고 주요 유아동 브랜드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가방앤컴퍼니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톡톡 보온·보냉 가방'을 선물로 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아가방과 디어베이비, 엘르 뻬뻬와 돌이며, 오프라인 편집숍 넥스트맘과 온라인 쇼핑몰 아가넷에서 구매한 고객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제로투세븐의 알퐁소와 포래즈는 22일까지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각각 '알퐁소 강아지 인형 미아방지 배낭'과 '포래즈 휴대용 접이식 컵받이' 등 증정한다.

금쪽같은 자녀, 조카들 선물로 화장품은 어떨까.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에서는 베이비로션, 베이비 샴푸&바스, 베이비 비누로 구성한 추석 선물세트를 3만9000원에 선보였다. 조선 왕실에서 왕자를 위해 사용한 오지탕 성분에 100% 국내산 한방 성분을 더해 아기 피부 보습에 좋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주석자레상 위 '69년 전통' 백화수복 롯데주류가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차례주 백화수복과 함께 자전 전통 차례음식 과 전문 셰프가 만든 '퓨전 차례 음식'을 비교해 선보이며 명절 차례 지내기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롯데주류 제공

전국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13~15일 500여곳 동시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0여 개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펼쳐진다.

시장경영진흥원은 10일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전통시장이 동시에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13~15일 사흘간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응모권을 제공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또는 장바구니 등을 나눠준다. 경품응모권은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상인회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시장에 따라 식용유, 굴비세트 등 품목별 할인과 특가 행사가 동시에 펼쳐진다.

또한 시장경영진흥원은 13~27일 프로모션 홈페이지 '해피시장'(www.happysijang.or.kr)에서 '전통시장 이용 후기 이벤트'를 진행해 500여 명에게 온누리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경영진흥원이 실시한 '추석 제수용품 가격조사'에 따르면 27개 품목의 추석 차례상 소요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1만9206원으로 대형마트(26만4954원)에서 구입했을 때보다 4만500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효순기자 hs[illegible]

휘닉스파크 "시즌권 쏜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가 올해 스키 시즌을 앞두고 '13/14 휘닉스파크 시즌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17일까지이며 휘닉스파크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pp.co.kr)을 방문해 '좋아요'를 누르고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된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긴 후 이벤트 페이지에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대하면 된다.

휘닉스파크는 추첨을 통해 시즌권 100매(1인 1매), 리프트권 및 워터파크 이용권 200매(리프트권 1매 + 워터파크 1매, 1인)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휘닉스파크의 13/14 시즌권 1차 판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황재용기자 hwy[illegible]

김영주 골프, 우즈도 '반할 가격'

30일까지 최대 70% 할인

김영주 골프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여름 시즌 오프 상품과 가을 신상품을 김영주골프 전국 대리점에서 최대 70% 할인한다.

또한 올가을 신상품인 남녀 커플 티셔츠(각 15만8000원)를 세트로 구매 시 9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스페셜 할인 이벤트는 지난 8월 열렸던 2013 KLPGA 투어 MBN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객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진행된다.

한편 김영주 골프는 한국인 최초로 4회 연속 밀라노 컬렉션에 참가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김영주의 크리에이티브한 패션 디자인 감성을 표현한 매스티지 라이프스타일 골프웨어로 미국 뉴욕과 베버리힐스에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문의 www.kygolf.com 02)2015-1954

알로앤루 벌써 '열살 파티'

유아동복 브랜드 10주년 가을·겨울 제품 할인 행사

제로투세븐의 유아동 브랜드 '알로앤루'가 1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한 달간 '10주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을·겨울 시즌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알로앤루의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땡스 투게더(Thanks Together)'의 일환이다.

알로앤루는 올해 론칭 10주년을 맞아 땡스 투게더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대한적십자사 삼금맘 지원 프로젝트와 알로앤루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 밴드 오디션 개최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왔다.

알로앤루의 글로벌 라이징을 위한 프로젝트도 펼쳐졌다.

지난 6월 국제아동복 박람회 '프티 밤보(Pitti Bimbo)' 전시 참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산드라 이삭슨과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출산용품'을 출시, 스웨덴 국제 갤러리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www.allo-lugh.com

불우노인에 인공관절 수술

선한목자병원-노년복지연합, 의료지원 협약

선한목자병원이 최근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 등 취약 노년층의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한국노년복지연합과 의료 지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한목자병원은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한국노년복지연합이 추천한 환자를 수술할 예정이며 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노년복지연합에 신청하면 된다.

이창우 선한목자병원 병원장은 "절개 부위를 10cm 미만까지 줄이면서 범소만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최소 절개법'으로 많은 환자들의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번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문 노년복지연합 이사장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병원들의 나눔 활동이야말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한목자병원은 지난해 미얀마에서의 무료 진료 활동을 시작으로 라오스, 네팔, 미얀마 등지에서 무료 진료소 건립과 의료진 양성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기름져 '독' 제철재료라 '약'

추석 명절음식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웰빙정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만큼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제철 약이 될 수도 있다.

명절 음식의 대부분은 식용유를 사용하는 고단백·고지방·고칼로리 음식이다. 추석 기간 이런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체중 증가는 물론 다른 신체 부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심혈관계 질환이나 눈의 주요 부위인 황반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 또 음식 섭취가 많은 연휴 기간에는 짜게 먹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혈관이 축소되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절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제철 과일인 감은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함유돼 있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을 빨리 산화시켜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시과 역시 추석 연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눈의 조직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칼륨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안과 질환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고등어, 연어 등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안구 표면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눈물막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은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전이나 튀김 같은 음식을 만들 때 고온의 기름이 피부에 튀거나 고온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럴 경우에는 차가운 물로 씻고 염증을 방지하는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특히 눈에 기름이 튈 경우에는 더욱 위험하다. 뜨거운 기름이 눈에 튀었다면 각막에 화상을 입어 시력 저하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대표원장은 "눈에 기름이 튄 후 기름기를 제거하겠다고 눈을 비비면 각막이 찢어질 수 있어 눈을 세척한 후 즉시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쉐프밥버거 '가맹비 면제' 화제

50호점까지 '3무' 혜택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밥버거'가 등장해 소자본 창업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쉐프밥버거에서는 최근 '3 제로(Zero) 50' 이벤트를 통해 밥버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3가지 비용(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50호점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밥버거는 지난달까지 전국 23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26가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해 전국 매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햅쌀 경기미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한명은 공짜"

18~22일 추석연휴기간 3인 이상 가족에게 혜택

가족형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한가위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우대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준비에 고생하는 어들을 위한 '워터파크&스파 공짜'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인 이상 가족이 워터파크&스파를 이용할 경우 엄마 또는 아빠 중 한 사람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제휴카드로 결제 시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또 추석 당일 한복을 입고 오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워터파크&스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복사랑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웅진플레이도시는 추석 기간 방문객들이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했다. 대형 윷놀이 게임

과 투호 제험, 물씨름 대회 등이 열리고 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루마 트랙, 징검다리 건너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준비된다. /황재용기자

스팀보이의 신화는 계속된다!

시작부터 뜨거운 반응~ 고객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teamBoy
스팀보이

metro book

의지로 못당할 유혹의 진화학

인간 자유의지 의외로 약해…현대 마케팅 홍수 속 '자기절제' 필요한 이유

달달한 고급 디저트를 파는 서울 한남동 패션5의 영수증에는 재미난 문구가 쓰여있다.

'Life is short, eat dessert first'(인생은 짧다. 그러니 디저트를 우선 즐겨라). 이 문구를 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굳은 다짐은 시르르 녹아버린다.

미국의 온라인 데이트 업체 애슐리매디슨닷컴의 모토는 과감하게도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워라'다. 바람둥이가 되라며 네티즌들을 노골적으로 유혹하지만,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둘러보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에워싸여 살아간다. 사악하다고 생각해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땐 유혹에 몸을 던지기 일쑤다. 종잇장처럼 얇은 의지를 자책하다 보면 인간에게 진짜 자유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궁금해진다.

미국에선 느린 자살이라 불리는 흡연, 과음, 비만 등 '자제력 부족' 현상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다. 사람이 무지해서 이 같은 결과가 생긴 걸까. '자기 절제 사회'의 저자인 미국의 저널리스트 대니얼 액스트는 자제력 부족이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콕 짚어낸다. 담배와 과음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인간의 의지보다 유혹의 기술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 늘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기 절제 사회

대니얼 액스트/민음사

뇌과학, 행동심리학, 진화생물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들 또한 인간이 본래 욕망에 저항하도록 진화하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말하고 있다. 뛰어난 자제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선 훌륭하게 자기관리를 하는 이들에게 후한 보상이 돌아간다.

의지력이나 정신력만으로 유혹을 뿌리칠 순 없을까. 저자는 강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는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 바다에 뛰어들지 않도록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으라고 했던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우스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지침을 열거했다.

과자 봉지에 손을 넣지 못하게 손톱에 잘 마르지 않는 매니큐어를 바른다든가, 디저트 반쪽에 소금을 뿌려 먹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인데, 유혹과 자제력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따른 대응법치고는 다소 힘이 빠진다.

/전효순기자 hskjeon@metroseoul.co.kr

책속한컷

눈 번쩍 뜨이는 '타인의 상상력' 새로운 거 없나!는 상사의 호통이 떨어졌을 때, 책상에서 일어나 조용히 소원도 산책을 나갈 일이다. 소비자의 욕구와 꿈, 바람을 담은 제품들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아이디어에 무릎을 칠 것이다. 첫 잔에서 여유있게 마신 음료를 하듯 디자인한 동키 프로덕트의 티백, 도넛회사 크리스피 크림이 여름을 맞이해 내놓은 캠페인을 전파하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다녀온 잔디 슬리퍼에선 신선한 웃음이 나온다.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라바짜가 내놓은 쿠키로 만든 에스프레소 잔 또한 재미나다. 설탕으로 안쪽을 코팅해 커피를 담아도 젖지 않는데, 커피를 다 마신 뒤에 컵을 씹어 먹으면 된다. - '아이디어 피우는 스톤 시즌2'(조현경, 어바웃어북) 중 -

/전효순기자

새로 나온 책

정치/사회

청춘이 사는 법

김민수/리더스북

대한민국 최초 청년 노조 청년유니온 김민수 팀장이 오늘을 사는 청춘들을 위한 최소한의 상식을 담았다. 어느 도 알려준 적 없었던 신용 카드 사나쯤 에 대한 재기발랄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고민과 고충에 대한 대답을 선사한다.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조지 F. 케넌/가람기획

봉쇄 정책의 아버지, '냉전의 설계자'로 알려진 조지 F. 케넌의 강연과 논문을 모았다. 1, 2차 세계대전에 이은 미국·소련의 대립과 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숨 가쁘게 돌아가던 20세기 전반기에 참여했던 케넌의 냉철하고 예리한 정세 분석과 전망이 담겨있다.

마케팅/자기계발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온 힐/초록물고기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으로 유명한 성공학의 전설 나폴레온 힐의 유작. 저자는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것도, 한계를 부수는 것도 자신에게 달려있다"며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마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좌절에 맞서는 7가지 법칙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법 등을 제시한다.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장정빈/올림

장미를 팔 때 "장미꽃 사세요"라고 외치기보다 "장동건이 고소영에게 사랑 고백할 때 줬던 장미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잘 팔린다. 행동경제학에서 입증된 연구 결과를 기업 마케팅과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사고 싶게 만들라"고 강조한다.

소설/에세이

안나와디의 아이들

캐서린 부/반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거듭하지만 그만큼 불평등이 심한 인도 뭄바이. 캐서린 부는 '꽃밭 사이의 똥 같은 존재'라고 자조하면서도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는 안나와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가장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마크라 문서

파울로 코엘료/문학동네

지난 2011년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파울로 코엘료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며 느끼고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집대성했다. 코엘료의 인생 철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라 문서는 전 세계 독자로부터 사랑받은 코엘료가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다.

과학

멸치 머리엔 블랙박스가 있다

황선도/부키

'물고기박사' 황선도가 들려주는 대한민국 바닷물고기에 대한 첫 보고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늘 보고 먹기만 해서 너무 익숙해져버린 물고기의 생태를 생생하게 전해주며 그 안에 숨은 갖가지 진화의 비밀을 맛깔나게 들려준다.

인문

현대미학 강의·앙겔루스 노부스

진중권/아트북스

문화평론가인 진중권 교수가 2003년 펴낸 인문서 '현대미학 강의'와 '앙겔루스 노부스'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현대미학 강의'에는 니체에서 보드리야르에 이르기까지 철학자 여덟 명의 이론을 조망하며 현대미학의 흐름을 담았고, '앙겔루스 노부스'에서는 미학을 통한 삶의 지향을 살핀다.

어린이

은수와 슈퍼 스마트폰

서지원/스콜라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2030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미래를 그렸다.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에 스마트폰을 친구 삼아 놀던 은수는 결국 24시간 감시 체계 속에 살아간다. 생각 없이 사용하면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스마트폰에 기대지 않고 꿈에 열중하게 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나는 누구예요?

콘스탄체 외르벡 닐센/봄봄스쿨

윌리엄은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소원이 이뤄져 태어났다"는 엄마의 말과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할머니의 말, "콩콩콩 심장 뛰는 소리"라는 할아버지의 말은 충분하지 않았다. 윌리엄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적적인 그림과 함께 담았다.

나의 삶 노랫말에 담았다 A-YO!

새 앨범 '인 스타덤 V3.0'로 2년 만에 돌아온 **조PD**

힙합 디스의 원조 조PD(37)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2년 만에 가수로 돌아왔다. 15년 전 욕설이 가득한 데뷔곡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청소년 유해매체 딱지를 붙이고도 데뷔 앨범 '인 스타덤'으로 5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던 그가 한층 정돈되고 건전한 가사들로 채워진 미니앨범 '인 스타덤 V3.0'을 14일 발표한다. 제작자 겸 가수로 다시 돌아온 그의 속내와 변화를 들어봤다.

아이돌 블락비와 분쟁 성찰 계기

2009년 아이돌 그룹 블락비를 데뷔시키며 음반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올해 1월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리며 제작자의 길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근 8개월간의 법정 다툼을 끝내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미련은 없어요. 블락비나 저나 앞으로가 중요하죠. 애들이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테니 미안하고, 이제 고생을 끝내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음악만 잘 만들면 좋은 제작자가 될 줄 알았던 그는 "블락비와는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다. 여러 면에서 미숙했고 하나씩 부딪히며 배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했다. 물론 큰 돈이 들었지만"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최근 2년간 제작에 몰두하며 가수로서의 삶을 잊고 지냈던 그는 "이번 분쟁을 겪으면서 다시 깨어나게 됐다. 가수로서 자고 있었던 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데뷔 앨범 '인 스타덤'과 2집 '인 스타덤 V2.0'의 연장선이죠. 초심으로 돌아가 세 번째 음악 전기를 쓰겠다는 뜻도 담겼고요. 10년 만의 연작인 이번 앨범을 통해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들려드리려 했죠."

작사·작곡·편곡을 포함한 앨범의 전 과정을 혼자 해냈던 지난 앨범과 달리 실력파 후배 프로듀서들에게 곡을 맡기고 자신은 노랫말만 썼다. 덕분에 앨범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풍성한 사운드로 듣는 재미를 준다.

록 분위기의 기타 연주가 인상적인 '달라진 건 없어', R&B와 어쿠스틱 사운드가 결합한 '잊혀즈 어베리 굿 이어', 이태원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메이드 인 이태원', 조PD에게 생소한 미디엄 템포 발라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등 6곡을 앨범에 담았다.

표현이 순화되긴 했지만 6번 트랙인 '섹은 XXX3'에는 특유의 날선 랩을 담았다.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과시한다는 의미의 힙합 용어인 스웨그 문화를 비판한 곡이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최근 3~4년 동안 힙합에 스웨그가 핵심 키워드가 됐어요. 물론 저도 한때 좋아했지만 너무 한 가지 음악이 오래 가는 것 같은 지겨운 느낌이 들어요. 연구 좀 해서 다른 것 좀 해보자고 꼬집는 곡이죠."

'빅뱅의 지드래곤을 겨냥한 곡이 아니냐'는 일부의 추측에 대해 그는 "절대 아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다"고 손사래를 치며 "예전에도 느꼈지만 지드래곤은 음악적으로 대견하다. 뮤지션에게 희망이 되는 박수받을 만한 캐릭터다"고 칭찬했다.

은퇴 번복 - 꾸준한 모습 보여줄 것

힙합 1세대 스타로서 최근 신·구 가수들의 디스전을 지켜본 소감은 남달랐을 것이다.

"강 건너 불 보듯 재미있게 관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아티스트를 많이 알게 돼 좋았고요.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힙합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길게 들어갔어도 재미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었죠."

2년 전 급변하는 음악 환경에 이질감을 느끼며 가수 은퇴 선언을 했던 그는 "사실상 은퇴 번복이다. 가수든 프로듀서든 제작자든 앞으로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직업인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블락비를 떠나보낸 그는 다음달 또 다른 실력파 아이돌 그룹 탑독을 선보인다.

"굳이 형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돌이지만 멤버 각자 저마다의 막강한 실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에 가깝죠. 훌륭한 원석을 발견하는 게 제작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에요."

/유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스타덤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illegible]

star bag

4년만에 정규앨범 발표

타이거JK가 4년여 만에 정규앨범 8집을 발표한다.

10일 소속사에 따르면 13일 선보일 이 앨범은 타이거JK가 윤미래 비지와 손잡고 만든 음반이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타이거JK가 아버지인 전직 팝 평론가 서병후씨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했으며, 자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노래다.

소속사는 "힙합 뮤지션이자 한 남자의 인생을 사는 타이거JK의 담백한 고백과 위로로 꾸며졌다"고 이번 음반을 소개했다.

다음달 초 가요계 복귀

아이유가 다음달 초 가요계 복귀를 확정했다.

소속사는 10일 "현재 새 앨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달 2일 혹은 7일쯤 컴백할 계획"이라며 "이번 음반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매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얼마 전 KBS2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을 마친 아이유는 전작 '스무 살의 봄'을 지난해 5월 발표했었다.

듀엣곡 '착해 빠졌어' 발매

씨스타 소유와 힙합 뮤지션 매드클라운이 합작 싱글을 발표했다.

10일 공개된 '착해 빠졌어'는 김도훈이 작곡하고 단연재가 작사한 노래로, 소유의 가녀린 음색과 매드클라운의 강렬한 랩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별을 앞둔 남녀의 상반된 심경을 노랫말에 담았다.

앨범 '쇼미더머니 2'로 얼굴을 알린 매드클라운은 씨스타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독립 음반 레이블인 스타쉽엑스엔터테인먼트에 얼마 전 새 둥지를 틀었다.

JYJ 팬클럽 1000만원 기부

JYJ 김재중의 팬클럽이 선행 활동을 펼쳤다.

10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아름다운재단의 '김재중 부여람 장학기금'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돈은 팬클럽 회원들이 올 상반기 열린 김재중의 미니 콘서트에서 직접 제작한 야광봉을 팔아 얻은 것이다.

앞서 장학기금은 팬클럽이 2011년 1500만원을 출연해 조성됐으며 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다.

'빠빠빠 2.0' 인기도 점핑점핑!

해외 겨냥 뮤비 공개 하루만에 36만건 '광클'
'젠틀맨' '강남스타일' 패러디 수준 지적도

이색 걸그룹 크레용팝이 해외를 직접 조준한 '빠빠빠' 새 뮤직비디오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

크레용팝은 '빠빠빠 2.0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새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인 10일 오후 조회수 36만 건을 넘어섰다. 6월 25일에 내놓았던 오리지널 버전의 뮤직비디오가 이날까지 77만 뷰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다.

크레용팝과 음반 유통 계약을 체결한 소니뮤직 코리아 측은 "미국 빌보드와 ABC 뉴스, ABC 계열 방송사인 KTNT로부터 '제2의 싸이'로 지목받은 바 있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첫 행보로 '빠빠빠 2.0 버전'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했다"며 "전 세계에 공개될 새로운 뮤직비디오는 글로벌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존 뮤직비디오와 차별화를 두며 새로운 소품과 콘셉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새 뮤직비디오는 큰 인기를 불러 모은 '직렬 5기통' 춤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엉뚱하고 코믹한 매력을 살렸다. 자막으로 멤버들의 이름을 강조해서 표기하는 등 팬들과의 공유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 뮤직비디오는 지나치게 싸이를 의식한 듯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 장면은 골목길을 유유히 걸어가는 '젠틀맨'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과 흡사하고, 뉴시멘역, 가로수길, 한강 뚝섬유원지,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 도심 곳곳을 배경으로 삼은 것도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거리에서 춤을 추는 이들을 시민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가 하면 한강변에서 운동하는 남성의 뒤태를 보고 좋아하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는 모습 등은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설정과 똑같다.

유튜브 댓글에는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기발하게 패러디했다'는 호평과 함께 '좀 더 신선한 것을 원했는데... 대놓고 싸이를 베끼는 수준에 실망했다'며 언타까움을 나타내는 글들도 상당수 게재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PHOTO

이번엔 올누드 뮤비… 파격의 끝은 어디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가 신곡 '레킹 볼' 뮤직비디오에서 올 누드 연기를 선보였다. 지난달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19금 퍼포먼스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또 한 번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사이러스는 뮤직비디오에서 내면의 매력을 누드와 크저 연기로 과감하게 표현했다.

▶ 환절기에 감기 걸리면 더 큰 아픔이 온답니다 /유순호기자

문명진 첫 단독 콘서트

중고 신인 문명진(사진)이 데뷔 12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무대를 마련한다.

그의 소속사는 10일 "문명진이 다음달 초 디지털 싱글 발매에 이어 18~19일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문명진 솔 포 라이드' 공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2001년 데뷔한 문명진은 '상처' '바루바루' 등을 불렀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2004년 발표한 2집 이후 보컬 트레이너로 전업했다.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동안 서태지와 아이돌 출신 이주노가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노래 실력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얼굴이 외국인 경같이 생긴 후배가 있다"고 말해 잠깐 화제를 모은 적은 있지만, 여전히 제야에 묻혀 살았다. 그러던 중 4월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서 해바라기의 '슬픔만은 아니겠죠'와 들국화의 '매일 이 밤아올 때까지'를 R&B로 재해석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명진은 "내가 작사하고 작곡가 돈스파이크·허니패밀리 주라의 함께 작업한 신곡은 들려줄 계획"이라며 "음악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지드래곤의 질주 누가 막으랴

수록곡 줄줄이 상위권

정규 2집을 발표한 지드래곤(사진)이 음원차트 상위권을 독식하며 아이돌 최강 솔로 파워를 입증했다.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2곡의 신곡을 선보인 지드래곤은 9일 공개된 8개 음원 사이트 주간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4개의 타이틀곡을 내세우는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앞세운 가운데 멜론·올레뮤직·엠넷·네이버 소리바다에서는 '니가 뭔데', '삐딱하게', '블랙' 등 총 3개의 타이틀곡으로 1위를 차지했다.

수록곡들도 무더기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네이버에는 6곡, 올레뮤직·엠넷·싸이월드 뮤직에 5곡, 소리바다·다음에 4곡, 멜론과 몽키3에 3곡 등 8개 차트에 평균 4.3곡이 톱 10에 올라있다.

지드래곤은 "1년 이상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앨범 전체를 골고루 들려드리고 싶었다"고 밝히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13일 12곡의 신곡과 '블랙'의 스카이 페레이라 피처링 버전, 또 다른 신곡 '권도우' 등 14곡이 수록된 2집을 오프라인에 출시할 계획이라 음반차트에서도 또 한 번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소지섭·공효진>

‘소·공 커플’ 로맨스의 힘

‘주군의 태양’ 무서운 뒷심
‘최고의 사랑’과 행보 비슷
홍자매표 로코물 또 통해

홍자매표 로맨틱 코미디가 또 제대로 통했다.

소지섭 공효진(사진 왼쪽부터) 주연의 SBS 수목극 ‘주군의 태양’이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 특유의 코믹하면서도 달달한 로맨스를 내세워 바람몰이에 돌입했다.

로맨틱 코미디에 호러를 더한 이 드라마는 10% 후반의 시청률로 수목극 1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환상의 커플’ ‘최고의 사랑’ 등 홍자매 작가의 전작들 만큼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주 까칠한 성격의 복합쇼핑몰 사장인 주중원(소지섭)이 귀신을 보는 태공실(공효진)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등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부터 홍자매 작가의 뒷심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진중한 이미지를 벗고 까칠하고 가벼운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소지섭이 ‘주군앓이’를 일으키며 여심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중이다. 그가 지난주 태공실을 향해 “예기야” “사랑하나봐”라고 던진 ‘닭살’ 느낌의 대사들이 여심에 불을 지폈다.

또 “꺼져”라고 외치며 손을 흔드는 동작과 슈트 패션 스타일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호기심을 자아내는 주중원의 전 애인 차희주(한보름)의 정체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등장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공효진이 차승원과 함께 출연해 신드롬급의 인기를 얻었던 ‘최고의 사랑’과 흡사해 눈길을 끈다. ‘주군의 태양’의 남녀 주인공과 비슷하게 비호감인 구애정과 까칠한 톱스타 독고진을 앞세웠던 이 드라마는 2011년 방영 당시 10% 후반의 시청률에 머물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시청률을 끌어올리며 독고진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다.

홍자매 작가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개성 있는 캐릭터와 재기 발랄한 대사에 연기자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호흡, 로맨스와 공포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섬세한 연출이 잘 어우러진 결과가 ‘주군의 태양’의 인기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제작사 측은 “주중원과 태공실의 러브라인이 앞으로 더욱 불붙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랑과 관심에 반성도 없는 드라마로 보답하겠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장지우·이준혁·유진연·최종훈·김동선·이영훈·박스킵·디오리(왼쪽부터)가 10일 열린 tvN 시트콤 ‘푸른거탑 제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M 제공

말년병장 최종훈 “이런 젠장 훈병이라니”

‘푸른거탑’ 새 시즌 오늘 방영

입소 군대 예능 프로그램인 tvN 시트콤 ‘푸른거탑’이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프리퀄(전편보다 시간상으로 앞선 이야기를 보여주는 속편)인 ‘푸른거탑 제로’가 11일부터 방영된다. 전편에서 말년 병장이었던 최종훈의 훈련병 시절을 신병교육대를 무대로 다루며 새로운 소재와 캐릭터를 선보인다.

최종훈은 10일 상암동 CJ E&M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저 대로 기대했는데 다시 훈련병 주기를 달아 어깨가 무겁다. (웃음) 24시간 촬영하는 등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 외모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몸무게를 5~6kg 뺐는데 촬영 후 힘들어 3kg이 더 빠졌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새 출연진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 실제 군대에 다녀온 배우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31세 최고령 훈련병 역의 이준혁, 잔머리의 신이자 1급 관심병사 역에 김동현, 악마 조교 역에 장지우 등이 합류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진기 PD는 “입소부터 퇴소까지 5주간의 훈련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다시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실제 신병교육대에서 촬영해서 극 몰입이 더 잘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탁진현기자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아내 폭행·위치추적 혐의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몰래 위치를 추적한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류시원 역시 “비록 벌금 님의 선고이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2010년 결혼한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순호기자 sumo@

이효리 “결혼하니 마음 든든해요”

가수 이효리(사진 오른쪽)가 기타리스트 이상순(왼쪽)과 결혼한 후 처음으로 방송에서 근황을 전했다.

1일 제주도 별장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린 그는 10일 MBC FM4U(91.9㎒)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전화 연결을 통해 출연해 “연애도 많이 해봤고, 가족도 친구도 있지만 결혼은 세상에 나만의 편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신혼 재미를 전했다.

이효리의 자랑에 MC인 김신영은 “혹시 아직 신혼이라 그런 것이냐. 그렇다면 정확히 사(6)개월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효리는 이달 말께 신혼여행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정가은 “배호근과 열애? 오빠·동생 사이”

배우 정가은 측이 배호근과의 열애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가은의 소속사 디딤531은 10일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정식교제 상태가 아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단계라 연인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좋은 오빠 동생 사이며 가깝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가은이 평소 절친한 황인영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영화 ‘히어로’ 촬영 현장에서 배호근에게 연기 조언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가은은 현재 SBS 수목극 ‘주군의 태양’에서 인진주 역으로 출연 중이다. /탁진현기자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마마도’ 정규 편성

중견여배우 여행기 다룬 작품

KBS2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있는 풍경 – 마마도 (엄마 마마도)’가 정규 편성됐다.

KBS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회 분량으로 제작된 ‘마마도’가 높은 시청률에 힘입어 정규 편성이 확정됐다”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55분에 방영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김영옥·김용림·이효춘·김수미 등 평균 연기 경력이 50년에 달하는 중견 여배우들의 진솔한 여행기를 담았다. 중견 남자 배우 4명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tvN ‘꽃보다 할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지난달 29일 방영된 첫 회는 전국 기준 10.2%(닐슨코리아)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탁진현기자

전설의 포르노 스타 부활

70년대 풍미 러브레이스 다룬 영화 개봉…사이프리드 열연

전설의 포르노 스타가 스크린에서 부활한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하드코어 포르노 여배우 린다 러브레이스의 굴곡 많은 삶을 그린 '러브레이스'가 다음달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러브레이스는 72년 하드코어 포르노론 최초의 극장 개봉작인 '목구멍 깊숙이'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성감대가 목에 있는 특이 체질의 캐릭터를 맡아 땀을 뻘뻘 흘리며 구강 성교를 하는 장면 등 청순한 미모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열연(?)으로 당대의 섹시 아이콘이 됐다.

이 영화는 2만5000달러(약 2700만원)의 제작비로 무려 6억 달러(약 6500억원)를 벌어들여 센세이셔널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미국의 하위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다.

러브레이스 역은 '맘마미아!' '레미제라블'로 친숙한 미녀 스타 아만다 사이프리드(사진)가 연기했다.

사이프리드는 트레이드 마크인 금발을 갈색으로 염색하고 주근깨를 그려넣는 등 과감한 변신에 도전하고 전라 노출을 스스럼없이 소화했다. 또 러브레이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자서전을 수차례 읽고 지인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 1월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을 당시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러브레이스가 살아 돌아왔다"는 격찬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 90년대 섹시 스타였던 샤론 스톤이 러브레이스의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엄마 역으로 나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개성파 피터 사스가드와 꽃미남 제임스 프랭코가 러브레이스를 착취하는 남편 척과 플레이보이 창업주 휴 헤프너로 각각 힘을 보탰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PHOTO

로버츠-멀로니 "이게 얼마만이야"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줄리아 로버츠(왼쪽)와 중견 미남 스타 더모트 멀로니가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이후 16년 만에 다시 만나 밝게 웃고 있다. 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토론토 국제영화제 출품작 '어거스트: 오세이지 카운티' 시사회에 참석한 이들은 '결혼식'에서 사랑인지 우정인지 헷갈려 하는 친구 사이를 연기했었다. /AP뉴시스

▶ 로버츠의 큰 입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네요. /조성준기자

★ 보르코사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14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추억의 영화 '라붐' 온다

소피마르소 데뷔작…33년만에 국내 개봉

원조 하이틴 스타 소피 마르소의 데뷔작 '라 붐'이 무려 33년 만에 다음달 국내에서 정식으로 지각 개봉된다.

1980년 프랑스에서 공개됐던 이 영화는 13세 소녀 빅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하이틴 멜로 드라마로, 당시 14세였던 마르소는 7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빅 역을 맡아 단숨에 스타덤을 거머쥐었다.

청순한 미모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이후 프랑스는 물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다이앤 레인·피비 케이츠 등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잘생긴 남학생이 빅의 귀에 워크맨의 헤드폰을 씌워주는 장면은 2011년 흥행작 '써니'에서 그대로 인용돼 요즘 관객들에게도 친숙하다.

수입사 측은 "프랑스 문화원과 1984년 한 영화 월간지의 창간 행사에서 필름으로 상영된 적은 있지만, 현지 제작사인 고몽에 문의해 본 결과 한국 극장 개봉은 이번이 처음이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이병헌·조민수 대종상 영화제 '새 얼굴'

매년 잡음을 빚어온 대종상 영화제가 새 출발을 선언했다.

대종상조직위원회는 10일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기술상 수상자들에게 총 2억원의 상금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심사위원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심사위원을 늘리며, 배우뿐 아니라 가수·공연예술인·국회의원·군인·경찰·작곡가 등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새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했고, 배우 이병헌(사진 왼쪽)과 조민수(오른쪽)가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영화제는 11월 1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time are you going to get up tomorrow?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y don't we have dinner together?
B Sure. Sounds great. When will you be free?
A 나는 5시 30분에 일을 끝내고 집에 6시까지는 도착할 거야.
B Cool. I can meet you at your house at 6:30.

정답 I'll finish working at 5:30 and get home by 6 o'clock.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maybe VS probably VS most likely
어쩌면 vs. 아마도 vs 거의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말하거나 추측할 때 maybe probably 같은 부사를 잘 활용하면 의미 전달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확정하여 말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부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maybe가 약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probably는 약 70%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most likely는 그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ex. Maybe John will come later.
어쩌면 존은 나중에 올지도 몰라요.

Probably John will come later.
아마 존은 나중에 올 거예요.

부사

▶ 부사란 일반동사 앞이나 뒤에서 동사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

부사 만드는 법: 형용사+ly
happy 행복한 – happily 행복하게
quick 빠른 – quickly 빠르게
slow 느린 – slowly 느리게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확인. 다음 문장을 두 번 입력해보세요.

1. It's very cold. 매우 추워요.
2. I speak French well. 저는 프랑스어를 잘해요.
3. He walks quickly. 그는 빨리 걸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Consumers are advised to use caution when applying this product ______ fabrics that have been dyed by hand.
(A) at (B) to
(C) out (D) off

02 Greenleaf Press will soon publish a ______ pocket version of Manuel Santiago's book *An Insider's Guide to Travel in Argentina*.
(A) gathered (B) replaced
(C) condensed (D) acquainted

01.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손으로 염색한 직물에 바를 때 주의하도록 권장된다.
해설 A를 B에 바르다, 쓰다는 apply A to B이므로 (B) to를 써야 한다.
어휘 consumer 소비자 use caution 조심하다, 주의하다 fabric 직물, 천 dye 염색하다
정답 (B) to

02. 그린리프 출판사는 마누엘 산티아고의 책 「소식통이 알려주는 아르헨티나 여행 가이드」를 축소판 문고판으로 곧 출판할 것이다.
해설 '축소된 문고판'이 적합하므로 (C) condensed를 쓴다.
어휘 publish 출판하다 gathered 모으는, 수집한 replaced 교체된, 그 자리 acquainted 잘 아는, 친한 적 있는
정답 (C) condensed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인물의 복장을 묘사하는 표현

A woman is wearing 여자가 ~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a necklace 목걸이 glasses 안경 a vest 조끼 a business suit 정장	gloves 장갑 a striped shirt 줄무늬 셔츠 black pants 검은 바지 casual clothes 평상복

인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교실/사무실/회의실

raise one's hand 손을 들다
work on the computer 컴퓨터로 작업하다
sit at the desks 책상에 앉다
make a photocopy 복사하다

talk to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다
write something on the paper 종이에 뭔가를 쓰다
type on the keyboard 키보드에 타자를 치다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노약자들 사이에 대상포진 유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과 6시간 이상의 수면,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기우세요.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블렌딩하지 않아 더 좋은…

유필문의 **커피로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블렌딩을 잘해야만 좋은 커피 맛을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전문가들만이 블렌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블렌딩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보다 균형감 있는 좋은 맛을 얻고자 블렌딩을 할 수 있다. 또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블렌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렴한 생두들을 조합해 준수한 맛을 지속시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다음으로는 시그너처 블렌드(Signature Blend)로 이는 스타벅스 등에서 볼 수 있듯 다른 커피집이나 로스팅하우스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인스턴트 커피처럼 일정한 맛을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블렌딩은 40~50가지 다른 생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뀐다 해도 같은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블렌딩을 통해서만 좋은 커피 맛을 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농부의 정성으로 수확되고 농장의 지형이나 날씨까지도 묻어나오는 한 잔의 커피는 그 맛을 떠나 농장 주위의 풍광에까지 이르는 정서적인 연대를 만들어 준다. 비록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도 독특하고 깔끔하고 개성적인 맛과 향을 보이는 단종 커피는 그대로가 좋은 것이다.

블렌딩으로 커피의 개성을 감소시키고 산지와의 연대감마저 깨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블렌딩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균형감 있는 풍부한 맛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나 자신 또한 성격이 서로 다른 커피를 잘 섞어서 새롭고 균형 잡힌 커피 맛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COE(Cup Of Excellence) 커피나 나인티플러스 또는 게이샤 커피가 설령 한쪽으로 맛이 치우치더라도 블렌딩으로 그 맛을 보완해 소위 균형 잡힌 커피를 만들 필요는 없다. 내가 경험한 정말로 좋은 커피 맛은 그 어느 것과도 섞이지 않은 단종 커피에 있었다. /커피로드 대표·한국커피교육연구원 www.gtcoffee.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9							
7			8					
			4				7	6
	3			8	6	9		
	8		7		5		4	
		1	9	4			3	
9	2				7			
					8			2
							8	5

	6		7					2
						5	6	
9						4		
3				4	7	9		
	4	2				8	5	
		9	8	1				3
		8						6
	9	1						
5					6		3	

스도쿠 정답

발제처구-보느스
인사 스도쿠 플래티넘(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 533-8877
www.saju4000.com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은데 내후년 상반기에 목표 낮춰야

오로라 여자 86년 5월 11일 술시

Q 농협 관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2개의 과목들이 있어서 그건 웬만한 농협 분야 시험은 대부분 도전해봤습니다. 이젠 한 시험에 올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7급 시험에 도전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9급 시험에 올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타어난 정화(丁火) 사주가 사지(巳亥)의 축시(丑時)로 소뒤주목(陰陽)처럼 아름다운 구슬을 빛나게 하는 순진함에 신만함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목표를 정해도 불분명해지고 인생 자체의 불만이 잦아지는 삶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돈 안 들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2014년까지 삼합살(三 가지 흉액이 겹침)이 있어서 시험에 수월함이 없으니 주관을 확실히 하여 골심히 하십시오. 순서에 의해 목표를 낮춰 2015년 상반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숙살하는 기운이 있어 주위 사람들에게 서지를 읽는데 보증을 서거나 그와 비슷한 일은 하지 마세요.

석사 마치고 공기업 인턴 근무 현재 안주하지 말고 계속 도전

나그네야 여자 86년 2월 17일 묘시

Q 지난번 사주풀이 잘 봤습니다.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려고요. 통계학과 전공으로 학사·석사를 마치고 현재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운이 어떤 분야와 맞는지, 또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A 수많은 직장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벌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인맥을 주요한 구분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무엇보다 업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능력으로 직장을 구분해 보면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키기 전에 못해 하는 사람이 그다음 단계이고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그 위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시킨 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가장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선의 길은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묵묵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1일(음 8월 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소일거리가 생겨 즐기 되찾는다. **60년생** 엉뚱한 지출 않도록 신경 써라. **72년생** 상사에게 칭찬 구할 일이 생긴다. **84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입지 강화하라.

소 — **49년생** 검시가 있어 진에 사람이 보자~ **61년생** 일관성 유지하면 최후에 웃는다. **73년생** 동료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 **85년생** 연인 덕에 즐거운 하루 본다.

호랑이 — **5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62년생** 금혹 믿으면 문제가 되니 신중할 것. **74년생** 생각도 못 한 곳에서 이득이 생긴다. **86년생** 막혔던 일이 풀려서 야호~

토끼 — **51년생** 겉멋을 잔뜩 부린 것에 속지 마라. **63년생** 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 넘긴다. **75년생** 당면한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 보라. **87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용 — **52년생** 벼르던 일을 틀려버린다. **64년생** 건강이 좋아지니 자신감도 쑥~ **76년생** 못 마땅해도 대세 따라야 손해가 없다. **88년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대비하라.

뱀 — **53년생** 어떤 사람 의견 따르면 편한. **65년생** 작은 것에 만족해야 큰 것 얻는다. **77년생** 구설수 있으니 공사 구별 엄격히 하라. **89년생** 신중함이 지나치면 전진 못 한다.

말 — **42년생** 편견은 찾아온 귀인 내쫓는다. **54년생** 소문은 꼭 눈으로 확인할 것. **66년생** 부부 간 생각이 같아서 즐겁다. **78년생** 어딘을 떠나려면 안전시고 조심하라.

양 — **43년생** 호칭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조심~ **55년생** 가문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7년생** 새로 얻기보단 가진 것 지키는 데 신경 써라. **79년생** 식장인은 존재감 보여준다.

원숭이 — **44년생** 사람 만으려면 많은 지출이 좋다. **56년생** 고집 부려 스스로 왕따 되지 마라. **68년생** 천둥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80년생** 개성과 튀는 것을 잘 구분하라.

닭 — **45년생** 술과 음식이 넘쳐 야호~ **57년생** 자녀 검사로 지출이 늘어난다. **69년생** 귀한 손님 접대할 일 생기니 유념하라. **81년생** 자만심은 빨리 버려야 뜻을 이룬다.

개 — **46년생** 이혼은 기분 전환에 좋다. **58년생** 할 일이 있어도 오늘은 참으세요. **70년생** 운전대 잡으면 엉뚱한 딸벅이 생긴다. **82년생** 자신이 있어도 만용은 금물~

돼지 — **47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매사 조심~ **59년생** 기다리던 기회를 잡는다. **71년생** 시간이 있을 때 자기 계발에 힘써라. **83년생** 꽃이 필 혀는 이성을 만나 애무가 필다.

태극전사 졌지만 희망골 쐈다

홍명보호 크로아에 1-2 패 이근호 인저리타임 만회골

홍명보호가 사실상 1.5군으로 나선 세계랭킹 8위 크로아티아와의 리턴매치에서 또다시 완패했다. 하지만 '홍심 콤비' 손흥민(21·레버쿠젠)과 이청용(25·볼턴)을 중심으로 매서운 공격을 선보이며 '한국형 축구'의 가능성을 엿보였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서 1-2로 패했다. 후반 19분 도마고이 비다(디나모 키예프)에게 선숭 헤딩골을 내주고 후반 25분 니콜라 칼리니치(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에게 헤딩 추가골을 내준 뒤 후반 추가 시간에 이근호(상주)가 헤딩골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특히 좌우 날개에 포진한 손흥민-이청용 조합이 위협적인 돌파를 앞세워 크로아티아 골문을 끊임없이 위협한 것은 인상적이었지만 전문 원톱의 부재로 인한 골 결정력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이근호 추격골 넣었지만 10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크로아티아 친선 경기. 후반 인저리타임에 이근호가 멋진 헤딩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올 2월 영국 런던에서 치른 크로아티아 평가전에서 0-4로 대패했던 대표팀은 7개월 만의 설욕전에서 또다시 완패하는 굴욕을 맛봤다. 특히 지난 6월 아이티 평가전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다.

홍명보호는 출범 이후 1승3무2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홍명보호는 10월 12일 브라질(20시 서울월드컵경기장), 15일 말리(20시 천안종합운동장)와의 평가전을 통해 전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추, 몸 맞는 볼 25개 구단 최다기록 경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사진)가 6경기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구단 역대 최다 몸에 맞는 공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추신수는 10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와 몸에 맞는 공 1개를 기록했다.

연속 안타 행진과 더불어 16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그는 올 시즌 25번째 몸에 맞는 공으로 이 부문 팀 역대 최다 신기록을 세웠다.

한편 4연승을 달리던 신시내티는 0-2로 패했다.

/조성준기자

한국 역도 선수단이 평양으로 떠나기 전 김포공항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평양 하늘에 태극기 펄럭일 것"

아시안컵 역도선수단 출국

국내 역도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10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떠났다.

선수 22명과 임원 15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고려항공 편으로 갈아타고 오후 4시쯤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장범 총괄선수단장(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은 "3위까지는 국기가 게양되므로 북한에서 최초로 태극기를 펄럭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 카자흐스탄, 북한 등 역도 강국들이 출전해 1위에 올라 애국가까지 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클럽 및 실업팀들끼리의 대결로, 한국 선수단 가운데는 국가대표인 원정권(남자 65kg)과 지난해 런던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원정식(남자 69kg)이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들의 경기는 16일 펼쳐진다.

/조성준기자 when@

NC 찰리, 팀 창단 첫 10승

롯데전 6이닝 무실점 SK, KIA 잡고 4연승

신생팀 NC 다이노스에서 첫 10승 투수가 탄생했다.

NC 에이스인 찰리는 10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롯데와의 홈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6이닝 동안 삼진 4개를 곁들이며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10승(5패) 고지에 올랐다. 찰리는 평균자책점도 2.60에서 2.51로 떨어뜨려 방어율 부문 1위자리도 굳건히 지켰다.

NC는 4명의 불펜 투수를 가동해 롯데의 추격을 따돌리고 3-2로 승리했다.

반면 3연패에 빠진 6위 롯데는 4위 넥센에 6게임 차로 뒤처져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군산구장에서는 SK가 KIA를 5-3으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리며 포스트시즌을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프로야구 전적 10일

■마산

롯데	000	000	200	2
NC	003	000	00X	3

[illegible]

■군산

SK	200	100	011	5
KIA	020	000	100	3

[illegible]

4-3으로 앞선 9회초 1사 2루에서 SK 최정이 2루타로 1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5연패의 굴욕을 당한 7위 KIA는 8위 NC에게도 1게임 차로 쫓기는 신세에 처해졌다.

한편 두산-LG(잠실), 삼성-넥센(목동)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이국명기자

나달 US오픈 테니스 우승

라파엘 나달(스페인·사진)이 US오픈 테니스 대회(총 상금 3425만 2000달러·약 381억원)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랭킹 2위 나달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하고 우승 상금 260만 달러(약 28억원)를 챙겼다.

왼쪽 무릎 부상에 시달렸으나 올봄 프랑스 오픈 우승으로 부활을 알린 나달은 2010년 이후 3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다시 올랐다. 또 개인 통산 메이저대회 우승 횟수를 13으로 늘렸다.

/조성준기자